

# 갑신정변 전후 '개화' 개념의 내포와 표상

김윤희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교수

■ **논문분야** 한국 근대사

■ **주제어** 개화, 개물성무 화민성속(開物成務 化民成俗), 『한성순보』, 독립주권, 윤치호, 갑신정변, 통치방식

■ **요약문**

서양사상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된 기왕의 연구는, 번역어로서 개화가 수용되기 이전에 사용된 개화 용어는 유교적 관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근대 개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명화(civilization)의 번역어가 수용되는 단계에서 비로소 개화는 서양 문명화를 의미하는 근대 개념으로 정립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기존 개화 개념에 대한 연구는 개화 개념의 내포와 표상에 대한 고찰을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1876년 개항에서 1884년 갑신정변 직후까지 개화 개념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1876년 개항 이후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물성무 화민성속(開物成務 化民成俗)'이란 수사를 통해 왕에게 건의되고 있었다는 점은, 이 말이 유교 문명뿐만 아니라 서양 문명의 수용을 포함하는 의미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도입하여 인지를 발달시키는 진취적인 기상이라는 의미, 풍속의 진보를 뜻하는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

## 머리말

1876년 개항 이후 조선 사회에서 사용된 ‘개화’라는 용어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근대화 또는 서양화를 지향하는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서 사용되어 왔다. 봉건적 억압과 불평등한 정치사회구조를 개혁하여 대내적으로는 자본주의하의 민주적 질서의 수립을 지향하며, 대외적으로는 근대 국제질서에서 명실상부한 독립국을 지향하려 했던 갑신정변의 정치사상을 고찰했던 연구들은 개화사상의 형성과 분화과정, 개혁론의 성격과 한계, 근대화의 연속과 단절이라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한국 근대 형성 과정의 복합성과 역동성, 나아가 변화와 개혁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는 풍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sup>1)</sup>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개화사상’의 성격과 의미에 집중하였고, 정치운동 또는 정치기획으로서 등장하는 개화 개념을 고찰하는 데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는 1894년 이전 개화 개념이 그 이후에 비해 정치기획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 같다. 그러나 임오군란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관료 및 지식인 사이에서는 개화란 용어가 확산되어 있었다. 고종의 무비자강정책이 시행되면서 발행된 『한성순보』는 부국강병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진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또한 개화당에 의한 정변이 발생했고, 한성부민이 정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적 행동을 단행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로 개화 개념은 정치운

함을 깨닫는 의식상의 변화가 내포되어 있었으며,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통해 국가의 진보와 독립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개화 개념이 정치운동 과정에 등장했던 것은 개화당의 성립이었다. 개화당이었지만 갑신정변에 참여하지 않았던 윤치호는 대민통치방식을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시스템의 변화라는 의미로 개화를 사용했다. 그러나 개화의 실행 주체인 왕의 존재를 탈각하지 못한 윤치호의 개화 개념은 통치자의 선택과 정치적 변수에 의해 그 실행의 기회를 엿보아야 하는, 권력구조의 틀 속에서 개념 지어진 것이었다.

개화 개념에 내포된 실행 주체로서 왕의 존재가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이었다. 주체적으로 권력구조의 변동을 추구했던 김옥균의 개혁은 갑신정변 직후 진행된 추국(推鞠) 과정에서 개화 개념으로 등치되었다. 『한성순보』의 풍속의 진보와 윤치호의 통치방식의 변화라는 의미가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에 그대로 내포되어 있었다. 다른 점은 실행 주체로서 왕의 존재가 그 의미를 상실한 것이었다. 따라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화심(禍心)’ ‘사죄(死罪)’ ‘흉패(凶悻)’로 통치자에 대한 도전으로 표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또한 일본의 군사력에 의지한 김옥균 등의 개혁이 개화 개념으로 등치되는 순간 반일 정서를 가진 민중에게 개화 개념은 ‘매국배종(賣國背宗)’의 이미지로 표상되었다.

1) 대표적 연구 중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광린, 1969, 『한국개화사 연구』, 일조각; 이광린, 1977, 『개화당연구』, 일조각; 이광린, 1989, 『개화파와 개화사상연구』, 일조각; 김영작, 1975, 『韓末ナショナリズム研究』, 東京大學出版會; 강재언, 1982, 『한국근대사연구』, 한울; 유영익, 1990, 『갑오경장연구』, 일조각; 한국근현대사학회연구회 편, 1998, 『한국근대 개화사상과 개화운동』, 신서원; 신용하, 2000, 『초기 개화사상과 갑신정변연구』, 지식산업사; 박은숙, 2005, 『갑신정변연구』, 역사비평사.

동 또는 기획에서 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목할 만한 최근의 연구는 갑신정변 과정에 동원되었던 참여층을 분석하여 갑신정변 주도층과 참여층의 인식상의 격차 나아가 한성부민의 인식을 다루어 갑신정변을 단지 극소수의 주도층의 것으로 전유했던 관점을 극복할 것을 제시했다.<sup>2)</sup>

따라서 갑신정변 전후 개화 개념을 고찰하는 것은 정치운동 과정에서 등장한 개화 개념의 계보로서 의미가 있으며, 1894년 이후 정치기획에서 등장하는 문명개화, 개화, 문명화 등의 개념을 역사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사로서 의미가 있다.

개화 개념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유길준의 개화사상에 주목한 연구로 후쿠자와 유키치 등이 일본어로 번역한 문명개화(civilization)란 용어가 수용되어 유길준에 의해 체계적인 개화론으로 정립되었다고 보는 연구이다.<sup>3)</sup> 이 연구는 유길준의 『서유견문』에 등장하는 개화 개념에 천착하였고, 이전 개화 개념에 대해서는 ‘개화사상’ 속에서 포괄적으로 개괄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문명담론의 수용에 주목한 연구로 1894년 이후 이 시기에 주목하여 문명개화 개념을 서양 문명화로 등치하여 고찰했고, 1894년 이전 문명담론이 아직까지 동양 문명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sup>4)</sup>

서양사상 또는 서양담론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번역어로서 개화 개념이 수용되기 이전에 사용된 개화 용어는 유교적 관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근대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그래서 문명화(civilization)의 번역어가 수용되는 단계에서 비로소 개화는 서양문명화를 의미하는 근대 개념으로 정립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기존 개화 개념에 대한 연구는 개화 개념의 내포와 표상에 대한 고찰을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도 문명개화 개념은 다양한 함의를 갖고 있었다. 후쿠자와 유키치 이전 번역어였던 문명개화는 ‘예의 작법’ ‘개인의 품행’ ‘사람 사이의 교제’를 의미하였지만,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 개념을 그 어원적 의미를 유지하면서 ‘인간관계가 점차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양상’ 또는 ‘한 나라의 모양을 갖춘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이는 문명화(civilization)에 내포된 진보와 국가에 대한 강조를 드러내는 것이었다.<sup>5)</sup>

조선에서 개화는 ‘개물성무 화민성속(開物成務 化民成俗)’을 뜻하는 용어였다. 이 용어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풍속을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는 뜻으로 통치자의 통치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수용이란 점에서 진보 관념과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통치자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개화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개화 개념에 내포된 함의와 유사성을 갖는 것이었다. 이처럼 개화 개념은 번역어의 수용 그리고 서양문명화라는 영역으로 한정될 수 없는 다양한 내포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그간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개화 개념에 내포된 다양한 함의를 고찰함과 동시에 그 개념이 어떻게 표상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대적 함의를 보다 엄밀히 고찰하기 위한 이 글에서는 1884년까지의 기록에서 발견되는 개화 용례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1884년까지의 기록이 소략한 관계로 이제까지 개화사상의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자료

2) 박은숙, 2005, 앞의 책.

3) 정용화, 1998, 『유길준의 정치사상 연구: 전통에서 근대로의 복합적 이행』,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4) 길진숙, 2004, 『『독립신문』·『매일신문』에 수용된 ‘문명/야만’담론의 의미 층위』, 『국어국문학』 제136권; 길진숙, 2006, 『문명의 재구성 그리고 동양 전통 담론의 재해석—『황성신문』을 중심으로』, 『근대 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지평의 확대』, 소명출판; 길진숙, 2007, 『1905~1910년, 국가적 대의와 문명화—『대한매일신보』의 문명 담론을 중심으로』, 『근대 계몽기 지식의 굴절과 현실적 심화』, 소명출판.

5) 김현주, 2001, 『서유견문의 (문명)개화론과 번역의 정치학』, 『국제어문』 24, 229쪽.

군에 비해 제한된 영역의 자료군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또한 개념에 대한 표상은 당시의 신문 『한성순보』와 정치운동이었던 갑신정변을 통해 살펴볼 수밖에 없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 1. 개물성무 화민성속(開物成務 化民成俗)

문명화란 의미의 개화 개념이 사용되기 이전부터 개화는 ‘개물성무 화민성속(開物成務 化民成俗)’<sup>6)</sup>이라는 압축된 단어로 쓰였는데, 이는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힘써 백성을 교화시켜 바른 풍속을 이룬다’는 뜻으로 왕 또는 성인의 역할을 규정한 말이었다. 1881년 영남과 호남 도적떼의 출몰을 막아 달라던 송상순(宋祥淳)은 “豁然開化 則匪類可化爲赤子 治功將及於無窮”<sup>7)</sup>라고 하여 조속히 개화를 한다면 비류들이 적자가 될 것이라고 하여 개화를 ‘개물성무 화민성속’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다.

‘개물성무(開物成務)’와 ‘화민성속(化民成俗)’은 모두 왕 또는 성인이라는 통치자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의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開物成務’란 말은 총 12건 등장하며, 세종대에 3건, 정조대에 2건, 고종대에 3건이 등장한다. 그중 1783년 청의 수레, 벽돌, 당나귀와 양의 목축 등의 기술을

6) ‘開物成務는 夫易 開物成務 冒天下之道 如斯而已者也 是故聖人以通天下之志 以定天下之業 以斷天下之疑(周易 繫辭上傳 제11장)이라 하여 사물을 열어 주고 일을 이루어 천하의 도를 포괄하는 것으로 성인이 이를 통해 천하의 뜻을 통하며, 천하의 업을 정하며, 천하의 의심을 결단한 것이라고 하여 성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었다. ‘化民成俗’은 君子如欲化民成俗 其必由學乎 玉不琢 不成器 人不學 不知道 是故古之王者建國君民 教學爲先(『禮記』 『學記』 제 17)이라 하여 군자가 백성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배움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었다.

7) 『日省錄』 高宗 18년(1881) 11월 6일(『한성순보』를 제외한 날짜는 음력임을 밝혀 둔다) 宋祥淳 疏略.

도입해야 한다는 대사헌(大司憲) 홍양호(洪良浩)의 상소에서는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에 대해 “開物成務한 공로는 前代의 성인들도 밝혀 내지 못한 것을 밝혀 낸 것으로서 천지의 조화와 서로 가지런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sup>8)</sup>라고 하여, ‘개물성무’를 이상적인 군의 통치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했다. 또한 부사직(副司直) 이헌경(李獻慶)은 한강 부교(浮橋)에 대한 찬미시를 지으면서 “단군·기자 이후 4천 년에 開物成務 聖神들이 만들었네”<sup>9)</sup>라고 하여, 새로운 기술과 발명에 대한 찬사를 드러냈다. ‘개물성무’는 이상적인 군주의 통치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비록 오랑캐 청나라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본받을 만한 것, 즉 중화라고 할 만하다면 통치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은 ‘개물성무’란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다.

한편 ‘化民成俗’은 『조선왕조실록』에 총 64건이 등장하며, 정조대에 10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정조대 ‘화민성속’의 내용은 『향례합편(鄉禮合編)』, 『소학(小學)』, 『대전통편(大典通編)』의 보급,<sup>10)</sup> 사학(천주교)을 믿는 백성에 대한 관대한 처분,<sup>11)</sup> 삼강(三綱)과 구법(九法)의 기강을 세워 풍속을 바로잡고, 학교를 일으키고, 전정·군정·과거제를 개혁하는 일<sup>12)</sup> 등 민정(民情)에 관계되는 거의 모든 것을 이상적인 유교 통치였던 안민(安民) 또는 편민(便民)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치고, 백성을 통치체제에 순응시키는 것이었다.

8) 『實錄』 正祖 7年(1783) 7月 18日 大司憲 洪良浩 上疏 ‘亦能通曉 開物成務之功 可 發前聖之未發 而參天地之造化矣.’

9) 『實錄』 正祖 13年(1789) 10月 5日 副司直 李獻慶 撰進 ‘浮橋行 詩曰. ‘檀箕以來四千載 開物成務聖神作.’

10) 『實錄』 正祖 22年(1798) 11月 15日 柒原 縣監 朴命燮 應旨上疏曰; 20年(1796) 4月 25日 華城 幼學 禹夏永 上疏 時務 三條.

11) 『實錄』 正祖 15年(1791) 11月 11日 刑曹啓言.

12) 『實錄』 正祖 20年(1796) 3月 22日 童蒙教官 崔崑 進所懷八條.

‘개물성무 화민성속(開物成務 化民成俗)’은 이념적으로 성인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왕의 정책 이념이기도 했다. 개항 이후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을 둘러싼 개화파와 척사파의 주장에서도 여전히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수사로 등장했다. 1882년 지식영(池錫永)의 상소는 “각국의 인사들이 저작한 『萬國公法』, 『朝鮮策略』, 『普法戰紀』, 『博物新編』, 『格物入門』, 『格致彙編』 등의 책과 김옥균이 편집한 『箕和近事』, 박영교가 편찬한 『地球圖經』, 안宗洙가 번역한 『農政新編』, 金景遂가 기록한 『公報抄略』 등의 책은 모두 막힌 소견을 열어 주고 時務를 환히 알 수 있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널리 보급하는 것이 “化民成俗하는 첩경이 아니겠으며, 利用厚生하기 위한 좋은 법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sup>13)</sup>

반면 사학(邪學)을 물리쳐 달라는 이견중(李健重)의 상소에 대한 고종의 비답(批答)은 “『禮記』에 이르기를, 化民成俗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학문에서 말미암는다고 하였으니 道를 강구하여 밝힌다면 어찌 邪說이 복종하지 않는 것을 걱정하겠는가? 응당 조정에서 조치가 있을 것”<sup>14)</sup>이라고 하여 정학(正學)의 고수를 피력할 때도 사용되었다. 또한 1896년 단발령에 반대하는 김병시(金丙始)의 상소처럼 “開物成務는 五 보다 나은 것이 없으며 化民成俗은 三王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列聖들이 서로 전해오는 心法을 祖述하면서 지키고 놓치지 않는 데에서 다시 다른 무엇을 구한다고 오랑캐의 법을 선대 임금들의 가르침 위에다 더 놓겠습니까?”<sup>15)</sup>라고 하여 전통의 고수를 주장할 때도 사용되었다.

1876년 개항 이후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물성무 화민성속(開物成務 化民成俗)’이란 수사를 통해 왕에게 건의되고 있었다는

13) 『實錄』 高宗 19年(1882) 8月 23日 幼學 沈錫永 疏略.  
 14) 『實錄』 高宗 30年(1893) 2月 18日 幼學 李健重 疏略.  
 15) 『實錄』 高宗 33年(1896) 1月 7日 特進官 金 始 疏略.

점은 이 말이 유교 문명뿐만 아니라 서양 문명의 수용을 포함하는 의미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개물성무 화민성속(開物成務 化民成俗)’의 의미를 갖는 개화 용어는 매우 다양한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예로 개화 또는 문명화를 정치기획에 동원했던 『황성신문』은 개화를 ‘개물성무 화민성속(開物成務 化民成俗)’으로 풀이했다.<sup>16)</sup> 그래서 기존의 개화사상 연구가 정치세력 또는 개인의 개혁 구상과 지향하는 모델의 차이를 고찰해 왔던 것은 수사를 통해 분석 불가능한 지점을 명확히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가 담보할 수 없었던 영역이 존재한다. 그것은 근대 국가의 수립 과정에서 드러나는 피통치자에 대한 조직화 부분이다. 즉, 앞서 언급한 ‘개물성무 화민성속(開物成務 化民成俗)’의 수사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은 그 실행 주체가 통치자 왕이라는 점이다. 반면 1894년 이후 발행된 신문의 개화와 문명 개념은 국가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그들을 근대 국가주권을 향해 조직하고 동원했던 기대 지평이었다. 이러한 개화 개념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894년 이전 개화 개념의 다양한 의미층위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부국강병과 풍속의 진보 — 『한성순보』의 개화

조선의 문헌 중 서양화의 의미를 포함한 개화란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881년 박정양의 『일본견문조건(日本見聞條件)』이었다고 한다. 수신사로 갔던 박정양은 일본의 서양화를 개화란 용어로 설명하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sup>17)</sup> 일본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동행했던 어윤

16) 『皇城新聞』 1898년 9월 23일 논설.  
 17) 이광린, 1969, 앞의 책, 32~38쪽.

중의 입장에서 드러난다. 어윤중은 개화 용어 대신 ‘일변(一變)’ ‘양제(洋制)’라는 말로 일본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돈길이 여러 곳으로 갈려지고, 물가는 등귀하여 이로 인해 물건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금은보화는 모두 서양국가로 보내고,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돌아가니 民은 生涯가 날로 궁핍해지고 氣像은 안정되지 못하였고”<sup>18)</sup>라고 하여 메이지 유신 이후 진행된 일본의 변화가 오히려 민생을 파탄낼 뿐만 아니라 풍속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정양이 사용한 개화라는 용어가 곧 서양문명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일본정부 정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는 개화가 조선에서는 ‘개물성무 화민성속(開物成務 化民成俗)’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개화를 서양화로 곧바로 등치시킬 수 없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반면 개화를 서양문명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 최초의 기록이 일본외교 문서에서 발견된다.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에 문정관(問情官)으로 동행했던 오경석(吳慶錫)은 조약이 체결되는 동안 구로타 기요타카(黒田清隆)의 수행원이었던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 모리아마 시게루(森山茂)와 자주 필담을 나누었다. 일본이 서양의 기선, 기차, 전신 등을 도입하여 생활이 편리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답한 말은 “개화의 인간을 만나 개화이야기를 나누는 정의가 각별히 느긋하다”<sup>19)</sup>는 것이었다. 역관으로 1853년부터 1875년까지 13차례나 북경을 다녀왔던 오경석이 서양문명화란 의미로 개화 용어를 사용했다면, 그가 중국을 통해 이 용례를 익히 알고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오경석의 발언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문명화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개화

용어가 중국을 통해 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물성무 화민성속(開物成務 化民成俗)’의 의미를 갖는 개화 개념은 서양을 야만이 아닌 문명으로 인정하는 인식상의 변화가 수반된다면 자연스럽게 서양문명화의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양의 문물을 모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은 1881년 이전부터였다. 1881년 척사상소에서 불태워야 할 책으로 지목된 것은 『중서문견(中西聞見)』, 『만국공법(萬國公法)』, 『공사지구(公史地球)』, 『속금일초(續今日抄)』, 『공업육학(工業六學)』, 『태서문견(泰西聞見)』, 『조선책략(朝鮮策略)』, 『흥아회잡사시(興亞會雜事詩)』 등의 서적과 『영환신보(瀛環申報)』, 『만국공보(萬國公報)』 등 상하이와 홍콩에서 발행되는 신문 등이었다.<sup>20)</sup> 그중 “요즘 일종의 時務를 안다고 논하는 사람들은 (중략) 신문인 『萬國公報』와 『黃書』 등의 글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 지금 시대의 상황을 지적하여 진술하기를 거의 李鄴의 장황한 글과 같게 하니”<sup>21)</sup>라는 송병선(宋秉璿)의 상소 내용으로 보아 『만국공보』가 서양 문명에 대한 소개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만국공보』는 1868년 상하이에서 창간된 『교회신문』이 개칭된 것으로 발행자는 알렌(Young J. Allen)이었다.<sup>22)</sup> 서양의 정치, 경제, 학문, 기술 등을 소개했던 이 신문의 논조는 중국 문명과 서양 문명의 유사성을 지적하여 중국인이 서양 문명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18) 魚允中, 1979, 『別單草』, 『魚允中全集』, 아세아문화사, 12~13쪽.

19) “開化ノ人ニ遇ヒ開化ノ談ヲ爲ス情意殊ニ舒ブ,” 『日本外交文書』 9권, 38쪽, 김하원, 1993, 「초기 개화파의 대외인식」, 『부대사학』 17, 469~495쪽.

20) 『實錄』 高宗 18年(1881) 3月 23日 承政院 提議, 閏7月 6日 江原道幼生洪在鶴等 上疏; 『承政院日記』 高宗 18年(1881) 11月 30日 幼生宋秉璿上疏.

21) 『承政院日記』 高宗 18年(1881) 11月 30日 幼生宋秉璿上疏.

22) Young J. Allen은 뒤에 中國 上海의 中西書院의 校長이 되었고, 1885년 윤치호가 상하이의 中西書院에 유학하면서 친분을 쌓았던 인물이다.

있었다.<sup>23)</sup> 따라서 이 신문을 통해 서양 문명을 보았던 조선의 관료와 지식인들은 ‘개물성무 화민성속(開物成務 化民成俗)’의 관념에서 서양 문명을 커다란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젊은 관료들이 수신사 등으로 일본을 다녀오면서 서양 문명을 포함하는 의미로 개화 개념이 확산되고 있었다.<sup>24)</sup>

서양 문명이 수용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고종의 조미 조약체결 결정으로 표면화되었다. 이재선 역모사건으로 30여 명의 유생을 처형한 사건이 있는 후 신사척사운동이 진정되었다. 그러나 1880년부터 시작된 서양 문물의 수용은 재정 고갈로 연결되었으며, 개항 이후 상품화 폐경제의 확대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임오군란은 부패한 권력의 작동방식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통치체제를 흔들어 놓았다. 청의 군대에 의해 위기를 모면한 고종은 통치권의 재건을 위해 동도서기적 입장에서 서양 기술의 도입을 통한 무비자강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민의 반서양 정서에 대한 교정을 시도했다.

『한성순보』의 발간은 임오군란 직후 수립되었던 고종의 무비자강정책에서 최우선 과제였던 ‘安民志’, 즉 반서양 정서의 확산과 민의 동요를 진압한다는 정책의 산물이었다.<sup>25)</sup> 『한성순보』는 발간 준비 과정에서 개화당의 정치적 실각으로 인해 주로 정부 관료들에 의해 발간되었다.<sup>26)</sup> 『한성순보』는 1884년 12월 박문국 화재로 정간될 때까지 총 36호가 발간되었고,

23) 차태근, 2005, 「19세기 말 중국의 西學과 이데올로기」, 『중국현대문학』 제33호, 15~22쪽.

24) 이광린, 1989, 앞의 책, 32~33쪽.

25) 구선희, 1996, 「개화기 조선의 대청정책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2~43쪽. 『조선책략』 전래 직후 고종은 청의 이홍장에게 보낸 ‘請示節略’과 임오군란 진압 직후 보낸 ‘善後事宜六條’을 통해 安民志, 用人材, 整軍制, 利財用, 變律例, 擴商務로 요약되는 무비자강정책을 수립했다.

26) 이광린, 1968,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38; 김복수, 2000, 「유길준의 개화운동과 근대 신문 창간에 미친 영향」, 『한국언론학보』 44-4.

주로 중국과 일본 등의 신문 기사를 전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기사에 전거가 밝혀진 외국 신문은 총 84개로 중국 신문이 16개, 일본 신문이 10개 등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224건의 기사가 『상하이신보(上海申報)』에서 인용될 정도로 중국 신문 인용이 월등히 많았다.<sup>27)</sup>

『한성순보』 기사는 기왕의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대로 서양의 기술문명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기술 진보를 이룩한 근본으로서 학문과 제도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서양 문명이 야만이 아니라 본받을 만한 문명으로서 그려졌고, 동시에 유교 문명에 대해서도 그 지위를 그대로 인정했다. 그리스 문명 등 고대의 선진적인 문명을 인정하는 등 문명 개념을 복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다.<sup>28)</sup> 문명 개념을 복수로서 사용하는 것은 무비자강 또는 부국강병을 위해 복수의 문명이 가진 장점을 취사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는 동도서기적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었던 고종의 무비자강정책을 지지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성순보』는 개화라는 용어보다는 부국, 국부, 부강이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전신기술에 대해 소개한 기사는 “그렇다면 천하에 으뜸가는 富國으로서 隣邦을 雄視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요, 손바닥을 보는 것처럼 쉬울 것이다”<sup>29)</sup>라고 하였으며, 프랑스 수출회사를 소개한 기사는 “프랑스 국민들은 한결같이 富國이 되는 방법에 힘을 쏟아 該社의 자본금이 이미 10만 프랑이나 되었다 한다”<sup>30)</sup>라고 하여, 서양의 기술문명이 부국강병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서양의 기술문명을 받아들여야 부국을 달성한다는 인식 속에서 부국이란 용어에는 서양 자본주의 국

27) 최준, 1969, 「『한성순보』의 뉴스源에 대하여」, 『신문학보』 2, 17~18쪽.

28) 『漢城旬報』, 「各國近事 漢學西行」, 1883년 10월 31일(『한성순보』 기사 게재일은 양력으로 표기했다); 『한성순보』, 「歐羅巴史記」, 제10호, 1884년 1월30일.

29) 『漢城旬報』, 「電報說」, 제9호, 1884년 1월 18일.

30) 『漢城旬報』, 「法國輸出會社」, 제31호, 1884년 8월 21일.

가의 기술과 경제제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반면 개화 개념은 다양한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한성순보』 기사 중 개화란 용어를 사용한 기사는 11여 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중 4건은 상하이 격치관(格致館)의 책과 영국 신문을 전재한 것이었고, 7건은 전거가 없다(〈표 1〉 참조).<sup>31)</sup>

〈표 1〉 『한성순보』의 개화 용례

날짜(양력)	기사 제목	전거	용례
1883. 11. 20	亞米利加洲	없음	독립한 이후부터 날로 부강해지고 달로 開化해서 (중략) 歐洲 5대국과 맞먹는다.
1883. 11. 30	亞非利羈洲	上海 格致館	이집트와 마다가스카르 및 유럽 제국의 속국은 점차 開化하여 날로 발전
1883. 12. 29	英人演說	英京新聞	印度의 文學·宗教를 살펴보면, 이미 한 풍속을 탈피하여 開化之成에 달해
1884. 01. 18	電報說	없음	萬國이 富強할 基兆이니, 거의 開化의 源由
1884. 01. 30	歐羅巴史記	없음	희랍의 開化는 勿撻齊에서 나온 것
1884. 02. 17	泰西運輸論	없음	富國強兵의 策이 이것으로 인해 점점 성취되므로 文明開化의 源由
1884. 02. 17	美國誌略	없음	銅色人種 (중략) 스스로 외진 곳으로 물러나서 開化할 생각을 많기 때문
1884. 03. 27	伊國日盛	英國 時事新報	이 나라 정부에서는 (중략) 一王之令에 순응케 하여 점차 開化로 나가게 하고
1884. 06. 14	申報俄高立約論	없음	守舊를 물리치고 開化를 받아들인다면 風氣도 變化될 것이다.
1884. 07. 22	俄國誌略續稿	없음	홀름하구나 표트르 1세여. 실로 러시아 開化의 시조이다.
1884. 08. 31	地球養民關係 屬前卷 亞非利羈洲	上海 格致館	사막의 북쪽은 (중략) 사람들은 野性を 다 벗지 못했으나 나날이 점차 개화되어 역시 유럽, 아시아 양주의 風度가 있다.

31) 이노우에 가쿠고로(1993), 한상일 옮김, 『서울에 남겨둔 꿈』, 건국대학교출판부. 전거가 없는 기사는 당시 『한성순보』의 주임으로 있었던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1884년 1월 10일 『華兵犯罪』라는 기사로 4월 일본으로 귀국할 때까지 『한성순보』의 기사 선택 등에 깊게 개입하고 있었다.

먼저 개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와 비슷한 용어였던 제세개물지업(濟世開物之業), 풍기대개(風氣大開), 풍기일개(風氣日開), 개진세도지의(開進世道之意), 풍기변화(風氣變化) 등은 모두 풍속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도입하여 인지를 발달시키는 진취적인 기상을 의미하는 말이었다.<sup>32)</sup>

이 말은 주로 기술문명보다 정신문명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어 “견해가 참으로 絶頂에 이르렀고 立議한 것 역시 비범”하다는 『순환신보(循環申報)』의 평가까지 덧붙여 소개한 일본의 역사가 기노시타 나오에(木下真弘)의 ‘쇄병의(銷兵議)’를 전재한 기사에서는 “開明한 나라라 일컫고 文賢의 정치를 한다는 나라들은 의당 서로 친목하여 이런 참혹한 화를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도 (중략) 저 강성하다는 나라를 가지고 보더라도 모두 만족을 모르고 甲이 군함을 만들면 乙은 대포를 만들고, 저쪽이 육지를 잠식하면 이쪽은 海를 併呑하여 서로 상대 나라보다 우월하기를 힘써 백성들을 도륙하고 和氣를 해친다. 군사력을 다투면 사람의 정신이 모두 살인과 땅을 빼앗는 데로 쏠리고, 道를 다투면 사람의 정신이 濟世開物之業시키는 데로 쏠리게 되는 것인데”<sup>33)</sup>라고 하여 인애(仁愛)의 정신이 ‘제세개물지업(濟世開物之業)’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개화 역시 앞서의 의미들과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전보와 영국의 운송수단과 같은 서양의 기술문명은 개화(開化)의 원유(源由)로 표현된 반면, 개화는 부강을 통해 한 나라의 풍속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때의 개화는 국가 또는 통치자와의 관계 속에 자리매김

32) 이 용례를 사용하는 『漢城旬報』의 대표적인 기사는 다음과 같다. 「論中國兵船僅足自守海」(제10호, 1884년 1월 10일), 「出版權」(제15호, 1884년 3월 18일), 「博覽會說」(제15호, 1884년 3월 18일), 「申報俄高立約論」(제24호, 1884년 6월 4일).

33) 『漢城旬報』, 「銷兵議」, 제6호, 1883년 12월 20일.



되었다.

“지금 印度의 文學·宗教를 살펴보면, 이미 한 풍속을 탈피하여 開化之成하여 印度의 人民들이 모두 국가의 독립과 政治自主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데도, 영국 정부에서는 허락하지 않고”<sup>34)</sup>라는 영국인의 연설을 인용하는 기사에서는 ‘개화지성(開化之成)’을 문학과 종교를 포함하는 풍속의 진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그리고 풍속의 진보란 의미는 궁극적으로 ‘국가 독립과 정치자주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었다. 개화는 인민이 국가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상의 변화를 의미했다.

개화 개념과 독립주권 개념의 관련성은 “1775년 워싱턴이란 자가 영국 정부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 독립한 이후부터 날로 부강해지고 달로 開化해서 그 나라의 융성함이 歐洲 5대국과 맞먹는다”<sup>35)</sup>는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개화는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서양 국가와 대적할 만큼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독립주권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 개화는 통치자 또는 통치 권력에 의해 이끌어지는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 영국의 『시사신보(時事新報)』의 기사를 인용하여 이탈리아의 상황을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이 나라에는 각종 인민들이 제각기 一黨을 수립하여 서로 단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중략) 그 뒤 이 나라 정부에서는 단합에 마음을 쏟고 거친 인민을 달래어 一王之습에 순응케 하여 점차 開化로 나가게 하고, 각방으로 富強을 꾀하였더니 오늘날에는 드디어 모든 국가들과 어깨를 겨루며 같이 달리고 있다”<sup>36)</sup>라고 하면서 인민을 통치 권력에 조직함으로써 개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34) 『漢城旬報』, 「英人演說」, 제7호, 1883년 12월 29일.

35) 『漢城旬報』, 「亞米利加洲」, 제3호, 1883년 11월 20일.

36) 『漢城旬報』, 「伊國日盛」, 제16호, 1884년 3월 27일.

통치자 또는 정부의 정책에 순응함으로써 실현된다는 의미를 내포한 개화 개념은 당시 고종의 무비자강정책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었다. 포트르 1세의 치적을 설명하는 기사 내용에서는 포트르 1세가 발달된 네덜란드의 해군법과 조선술을 들여와 상선을 축조하고 무역을 확장하여 러시아 발전의 기초를 삼았다고 하면서 “훌륭하구나, 포트르 1세여. 실로 러시아 개화의 시조”<sup>37)</sup>라고 칭송하기도 했다. 전거 없이 작성된 이 기사는 『한성순보』의 입장을 비교적 분명히 드러내는 것으로 러시아 황제의 개화 정책이 당시 고종의 무비자강정책과 겹쳐 보일 수 있는 것이었다.

동서양 문명의 장점을 수용하는 의미를 포함하며, 국가의 부강과 독립 주권을 지향하는 진취적인 풍속을 의미하는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에는 실행 주체로서 통치자의 존재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때 개화는 통치자의 행위로 규정되었던 ‘개물성무 화민성속(開物成務 化民成俗)’의 의미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서양의 기술문명은 ‘개물성무(開物成務)’의 차원에서 통치자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서양의 제도 역시 ‘화민성속(化民成俗)’의 차원에서 모방 가능한 것이었다.

『한성순보』의 개화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어 대내외적으로 독립주권을 유지하며, 국가의 진보를 의미하는 개념이었으며, 고종의 정책을 위해 서양 문명에 대한 반감을 감소시키면서 개화 개념을 고종의 통치권의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개화 개념은 부국강병이란 용어에 비해 추상적이었지만, 통치권에 의한 진보라는 의미에서 부국강병보다 넓은 의미를 포함하게 되었다.

한편 『한성순보』의 개화 용례 중에서 개화를 수구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한 1건의 기사가 발견된다. 1884년 러시아와 조선의 조약체결 문제가

37) 『漢城旬報』, 「亞米利加洲」, 제28호, 1884년 7월 22일.

거론되자 러시아와 조약을 맺더라도 뒷날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 중에 “朝鮮이 지난해 중국의 勘定을 거친 뒤부터 上國의 명에 따라 通商을 결정하고 歐洲와 外交를 樹立하여 外輔로 삼고 있으니 온 나라 사람이 모두 통상의 이로움을 알고 있을 것이나, 끝내 古法에 얽매어 모두 空談이 되고 있다. 物이 極에 도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오고 變이 極에 이르면 비로소 통하는 것이니 守舊를 물리치고 開化를 받아들인다면 風氣도 變化될 것이다. 그러나 黨人の 이름은 없어졌으나 黨人の 자취는 없어지지 않아 (중략) 지금 朝廷에서 變革에 뜻을 세웠으나 禁畧을 고치지 않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대부분 의심하고 있으니 (중략) 大本을 모아서 大利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반드시 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民間의 협조 없이 國庫만 믿는다면 財政이 궁핍하여질 것이니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sup>38)</sup>라고 하여 당시 추진되던 고종의 무비자강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면서 수구의 제거를 예고하는, 즉 권력구조의 변동을 통한 개혁과 ‘민간의 협조’를 위해 통치방식의 변화를 예고하는 표현으로서 개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한성순보』의 다른 기사와 비교하여 예외적인 것이었다.

### 3. 통치방식의 변화—윤치호의 개화

개화 용어가 정치운동에 최초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개화당의 성립부터라고 할 수 있다. 김옥균 등의 정치세력이 결사체를 구성한 것은 대략 1879년쯤이었고, 이들은 1880년 이후 스스로를 개진당(開進黨), 독립당(獨

38) 『漢城旬報』, 「申報俄高立約論」, 제24호, 1884년 6월4일.

立黨), 개론당(開論黨), 진보당(進步黨), 신문당(新論黨)이라고 하였으나, 보통은 개화당이라고 불렀다. 특히 이들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던 일본은 ‘개화당’으로, 미국은 ‘The progressive Party’라고 불렀다.<sup>39)</sup> 개화로 명명된 정치세력의 등장으로 개화 개념은 이전보다 선명한 의미를 갖게 되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화당의 등장은 이제까지 『한성순보』의 개화 용례에서 드러나는 의미와는 다른 함의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갑신정변 이전 개화당의 개화 개념을 고찰할 수 있는 기록은 많지 않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영향으로 개화를 문명화(civilization)의 번역어로 사용했다는 유길준의 경우를 보더라도 1883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쟁론에서는 ‘문명불개(文明不開)’, ‘미명불개(未明不開)’ 등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sup>40)</sup> 따라서 개화파의 개화 개념을 추적하기 위해 김옥균 등과 정변 직전까지 여러 차례 회합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개화당의 일원으로 생각했던 윤치호의 일기를 통해 그 대략을 살펴보겠다.

① 일재(어윤중)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蠻夷를 면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말했다. 내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대저 蠻夷와 開化의 구별은 인의(仁義)와 잔혹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저 蠻夷라는 것은 서로 죽이고 잡아먹는 등 잔혹하고 어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어 백성을 얹어매어 살육하고 도해하고 있는데 살인하는 데 있어 몽둥이로

39) 이광린, 1977, 앞의 책, 16쪽.

40) 유길준의 국권론과 경쟁론의 작성 시기에 대해 유영익(1990, 앞의 책, 131쪽, <부록 2> 갑오경장 이전 유길준의 주요 집필 문건 목록)은 내용과 서체로 미루어 유길준이 『한성순보』에 기고하기 위해 준비했다가 미처 발표하지 못한 글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月脚達彦(1991, 「開化思想の形成を展開—俞吉潐の對外觀を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8, 16쪽)과 구선희(1996, 앞의 논문, 125쪽)는 국권론의 작성 시기를 1887년에서 1889년 사이로 보았다.

하는 것과 같로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sup>41)</sup>

② 저 때 운태(민영익)에게 北伯(함경남도 병마절도사, 윤응렬)의 사사로 운 혐의로 공평하지 않다는 글을 보냈다. 그런데 운태는 가친(윤응렬)의 일을 돕고자 힘을 쓰려는 것 같지 않다. 가친의 일이 어찌 우리 집의 사사로 운 일이라 하겠는가? 이는 開化進歩의 一大機關인데 운태가 힘을 쓰지 않으니 한탄스럽다.<sup>42)</sup>

③ 아침에 가친을 찾아뵙고 개화당의 급진이 옳지 않음을 이야기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대치(유대치)를 방문하여 시사를 의논하다. (중략) 개화당은 마땅히 근신하면서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등을 말하였다.<sup>43)</sup>

임오군란 이후 상황에 대해 매우 신랄할 비판을 가했던 윤치호는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을 조선의 실정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불행히 올해 여름에 척족 민씨들이 덕을 잃고 (중략) 임금은 약하고 백성들은 어리석어 어찌 할 바를 몰랐던 것이다. (중략) 우리나라에 본래 失政이 없었다면 병요가 어찌 일어날 수 있으며, 인민이 편안했다면 豚兵(청군)이 무슨 일로 나왔겠는가? 안으로 민요가 있고 밖으로 외인들의 제어를 받는 것은 모두 우리 정부의 죄악이 가득한 데서 나온 것이다. (중략) 마땅히 德政을 베풀어 민심을 위로하고 힘써 병대를 훈련하여 (중략) 그런데 위로 왕, 왕후 정부는 이를 모도하지 않고 군신은 잠시 쉬는 것으로 평안하려 하고 상하는 작은 편안함만을 즐겨하고 있다. 정령을 6월(임오군란) 전과 비교해 볼 때 오히

41)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3, 『尹致昊日記』 1권, 甲申 正月 2日, 42쪽.

42)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3, 앞의 책, 甲申 5月 21日, 74쪽.

43)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3, 앞의 책, 甲申 9月 16日, 105쪽.

려 더욱 나빠지고만 있다. (중략) 내정이 이와 같이 한심스러우니 獨立하여 외인을 물리친다는 말은 막막하여 아무런 뜻도 없는 것이다”<sup>44)</sup>라고 하여, 임오군란 이후 청의 속방정책 강화와 여기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응은 덕정과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았다. 이것은 독립이 통치방식과 밀접하게 결합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임오군란 이후 통치방식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세 인식 속에서 윤치호는 개화를 대민통치에 있어서 인의(仁義)의 실현으로 보았다. ①의 기록에 의하면 소중화 의식을 반영한 듯 어윤중이 ‘조선이 야만에서 벗어난 지 오래’라고 한 말에 대해 윤치호는 당시 조선에서 행해지는 참혹한 형벌과 권력의 남용을 들어 어윤중의 말을 반박했다. 1881년 이재선 역모사건과 1882년 임오군란의 주동자를 군기시 앞(광화문 네거리 근처 지금의 서울프레스센터 앞)에서 능지처사를 시켰던 당시의 상황<sup>45)</sup>과 형조의 미국 공사관 하인 구타 사례에 대한 윤치호의 인식을 고려하면,<sup>46)</sup> 윤치호는 대민통치 방식을 ‘덕정’ 또는 ‘인의’의 통치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로 개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때 ‘덕정’ 또는 ‘인의’라는 것은 “이번 일로 인하여 미국 공사는 조선 법관이 공사관 僕役을 審罪도 하기 전에 推刑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노하고 있다”라는 언급에서 보듯 인민의 신체와 생명 보호에 대한 법적 절차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시스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47)</sup>

44)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3, 앞의 책, 壬午 12月 4日, 31~32쪽.

45) 류재택, 2000, 「임오군란의 원인에 대한 재고찰」, 『실학사상연구』 14, 767~773쪽, 권오영, 1992, 「임오군란 일지」, 『근현대강좌』 1, 156쪽.

46)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3, 앞의 책, 甲申 7月 10日, 11日, 91~92쪽. 윤치호는 이 일을 몹시 부끄럽게 여겼고, 이 일을 자행한 형조판사 이인웅의 행동을 ‘개 같은 행동’이라고 하면서 비난했다.

47) 윤치호는 고종과 미국 공사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그의 일기에는 미국 공사관과의 접촉이 자주 등장하며, 그들이 조선의 관료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윤치호가 동

통치방식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독립과 연결되기 때문에 윤치호는 대내외적으로 국가를 지탱하는 물리력으로서 군대의 양성에 대한 ②의 인식과 연결된다. 자신의 아버지인 윤응렬이 함경남도 병마절도사에 재직하는 동안 470명의 신식 군대를 양성하고 있었던 일이 민씨 척족의 반대에 부딪쳐 좌초될 무렵<sup>48)</sup> 민영익에게 요청한 도움이 거절되자 윤치호는 군대양성의 일이 “開化進歩의 一大機關”이라고 하여 한탄했다. 이는 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독립과 통치 권력을 유지하는 물리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통치방식의 변화를 내포한 윤치호의 개화개념은 개화당의 개혁론과 상통하는 것이었다. 갑신정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대로 개화당의 개혁 내용은 봉건적 수탈의 제거, 신분제적으로 운영되던 관리등용, 교육, 과세, 군역 등의 폐지, 국가재정의 단일화를 통해 재정기반 확충, 자유상업과 자본주의 금융·유통 시스템의 도입 등이었다. 개화당의 개혁 내용 중 정치체제, 인민평등권 제정 등의 문제에서 이견이 갈리는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이상의 내용은 통치 방식에 대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sup>49)</sup>

그러나 윤치호는 당시의 정치 현실에서 ‘개화’의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

조하는 한편 부끄럽게 생각하는 기록이 자주 보인다.

48) 박은숙, 2005, 앞의 책, 57~60쪽.

49) 정치체제와 권력 운영에서 국왕의 전제를 폐지라는 점에 주목하여 내각회의의 권한을 강조한 이광린의 연구(1977, 앞의 책)와 입헌군주제의 초기 형태로 보는 신용하의 연구(2000, 앞의 책)가 있으며, 일본의 유사전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는 槽谷憲一의 연구(1985, 『甲申政變·開化 研究の課題』,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2), 그리고 신권 중심의 정치운영으로 보는 주진오의 연구(1995, 『19세기 후반 개화개혁론의 구주와 전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7쪽) 등이 있다. 인민평등권을 신분제 폐지와 관련하여 해석한 연구로는 이광린(1973, 앞의 책, 168~169쪽), 신용하(2000, 앞의 책, 94~97쪽), 전봉덕(1981, 『근대 개화사연구』, 박영사, 79쪽) 등의 연구가 있으며, 갑신정변 세력의 민권 인식의 제한성에 주목하여 신분제 폐지로 직결되는 것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연구로는 槽谷憲一(1999, 『閔氏正權上層部の構成に關する考察』,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7, 45쪽), 박은숙(1998, 『문벌 폐지를 통한 인민평등권 제정과 인재등용』, 『역사와 현실』 30) 등의 연구가 있다.

으로 생각했다. ③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 갑신정변 세력의 행동과 거리를 두었던 그는 갑신정변이 진압되기 직전에 윤응렬이 이야기한 갑신정변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임금을 위협한 것, 외세에 의지한 것, 인심을 얻지 못한 것, 청군의 존재, 임금이 총애하는 신하를 죽인 것, 봉당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동감하면서 “우리 부자를 끌어들이 같은 무리로 삼으려 하니 두렵다. 그러나 이에 좇으면 역적이 되고, 역적이 되면 망하게 되니 진퇴유곡이라 할 수 있다”<sup>50)</sup>라고 하여 권력구조의 변화를 꾀한 갑신정변 세력과 달리 통치자 왕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갑신정변이 진압된 다음날 기록에서는 “古遇輩(김옥균의 무리)의 경망스런 행동은 위로 국사를 실패하게 하고 아래로 민정을 시끄럽게 하였으며, 공적으로는 개화 등의 일을 탕패시켜 남김이 없게 하였다. (중략) 우리와 같은 무죄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는 군왕의 의심을 사게 하고 아래로는 인민의 앙심이 있게 하였으니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말을 가려 쓰질 못하니 고우는 용기가 없는 것이다”<sup>51)</sup>라고 하여 김옥균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 섰다. 통치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통치자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윤치호는 상하이에서 “학문이 성취되면 서울로 돌아가 近親하여 부모를 봉양하고 聖君을 보필할 것이다”<sup>52)</sup>라는 다짐으로 1884년 한해를 마무리했다.

실행 주체가 왕이라는 의미가 담긴 윤치호의 개화 개념은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었지만, 통치방식에 대한 변화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보다는 구체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통치방식이 변화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갑신정변 세

50)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3, 앞의 책, 甲申 10月 19日, 118~119쪽.

51)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3, 앞의 책, 甲申 10月 20日, 119쪽.

52)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3, 앞의 책, 甲申 12月 30日, 137쪽.

력과 다른 입장이었던 윤치호의 인식 속에는 통치자의 의지와 정치적 변수에 의해 그 실행의 기회를 엿보아야 하는, 당시 조선의 권력구조의 틀에 갇힌 개화 개념이 담겨 있었다.

#### 4. 혁명적 개혁 그리고 역적—갑신정변의 개화

개화 개념에 내포된 실행 주체로서의 왕의 존재가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이었다. 김옥균은 1883년 6월에서 1884년 5월까지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 일본에 머물면서 일본의 정치가 고토 쇼지로(後藤象次郎)에게 「조선개혁의견서(朝鮮改革意見書)」를 보내 내정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군주가 비록 영민하고 총명하지만 400년 동안 누적된 완고한 습속을 갑자기 바꾸지는 못했다. 사세가 부득이하여 한 번 크게 경장하여 정부를 개혁한 연후에야 군권을 높일 수가 있고, 민생을 보존할 수 있다”<sup>53)</sup>는 언급은 일찍부터 통치 권력의 작동방식에 대한 변혁을 고려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김옥균은 『갑신일록』에서 개화란 용어 대신 개혁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권력구조의 변화를 추구하였는데, 이때 개혁은 왕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하는 것이었다. “(홍영식이 말하길) 우리들이 오늘날 절박한 사세를 위해 한 몸의 목숨을 버리고 한 번 改革하려는 뜻을 품었더니”<sup>54)</sup>라는 표현과 “(김옥균이 홍영식에게 말하길) 오늘날 절박한 상황 아래서 累卵의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좌우를 돌보지 않고 한 번 變革을 도모하고자 함은 사세를 따라 결정한 것이오”<sup>55)</sup>라는 표현은 왕에게 개혁을 요청하는 차원이 아

53)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79, 「朝鮮改革意見書」, 『金玉均全集』 아세아문화사, 117쪽.

54)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79, 「甲申日錄」, 앞의 책, 35쪽.

55)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79, 「甲申日錄」, 앞의 책, 45~46쪽.

나라 그들 스스로가 개혁을 시행하는 주체라는 점을 보여 준다.

김옥균의 개혁은 “내가(김옥균) 3년 전부터 어리석은 소견이나 우리나라를 독립하여 구습을 변혁하자면 일본의 힘을 의뢰하지 않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여겨”<sup>56)</sup>라는 표현과 “내정 개혁 및 간신도배를 제거하는 계책을 내가(김옥균) 혼자서 맡고 일이 발생한 뒤에 군사를 내어 보호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막는 일은 공사(일본공사 竹添一郎)가 담당하기로 결정하여”<sup>57)</sup>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도움으로 권력구조의 변화를 통해 내정개혁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독립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김옥균의 ‘개혁’이 개화와 같은 의미로 표상된 것은 갑신정변 후 진행된 추국(推鞠)과정에서였다.<sup>58)</sup>

##### ① 김봉균(金奉均)의 진술<sup>59)</sup>

영효, 광범, 옥균, 영식 등이 앉아서 말하기를 “지금 나라 일을 돌아보면 막연하다. 간신이 권력을 농간하고 채용은 고갈되었으나 이를 하여 개화라 하니 개화의 효험은 없다.” (중략) 또 말하길 “실 개화당은 몇 사람 없고 모두 완고당이니 개화의 효험이 어느 날에 있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략) 前後左右營使는 모두 완고당으로 언제 개화할지 모르니 이제 그들을 제거하자는 말이었다.<sup>60)</sup>

56)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79, 「甲申日錄」, 앞의 책, 34쪽.

57)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79, 「甲申日錄」, 앞의 책, 62쪽.

58) 『推案及鞫案』에서 확인된 갑신정변 참여층은 모두 77명이었고, 이들은 김옥균 등의 주도층에 의해 정변 당시 행동대원으로 포섭된 자들이었다. 신분상으로는 양반이 10명, 중인이 5명, 양인이 39명, 신분을 알 수 없는 자가 23명이었다. 갑신정변 참여층에 대한 것은 박은숙(2005, 앞의 책)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59) 그는(당시 26세) 박영효의 겸종으로 1882년 수신사행 때 동행하였으며, 갑신정변 때 이조연과 유재현을 살해하였고, 대역부도죄인으로 군기시 앞에서 능지처사를 당했다(이하 참여층의 신분과 활동은 박은숙의 앞의 책 ‘표 6’ 갑신정변 참여층의 신분과 직업에 따른 것이다).

60)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78, 「大逆不道罪人喜貞等鞫案」, 『推案及鞫案』, 아세아문화사, 585쪽.

② 신중모(申重模)의 진술<sup>61)</sup>

김옥균이 일본에 왔을 때 (중략) “서양 각국은 모두 독립국이다. (중략) 조선은 홀로 중국의 속국이 되어 있으니 심히 부끄럽다. 조선은 어느 때 독립하여 서양 여러 나라와 동렬에 설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였다. 그 후 조선에 돌아와서 (중략) 옥균과 재필의 집을 왕래하며 자주 들은 말은 “각국 사람들은 그 몸을 아끼지 않아 개화를 얻었는데 조선은 홀로 불능하니 매우 한스럽다.”라는 것이었다. (중략) 영효 등이 나를 불러들여 참석하여 들으니 “건넌방에 있는 최은동과 윤경순 두 사람도 모두 이와 같으니 개화는 이를 수 있다”라고 운운하였다.<sup>62)</sup>

③ 이운상(李允相)의 진술<sup>63)</sup>

서광범은 미국에서 돌아온 후 죽동 영감(민영익)과 뜻이 맞지 않아 미워하는 마음이 항상 흉중에 있었으며, 옥균·영효·영식과 매양 상의하기를 “함께 개화하려면 먼저 죽동 부자를 제거한 후에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sup>64)</sup>

④ 이응호(李應浩)의 진술<sup>65)</sup>

(신복모) 대답하길 “청·일의 교전으로 박영효와 김옥균의 무리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중략) 우리들은 개화의 세상사가 이루어진다면 마땅히

61) 그는(당시 23세) 일본에 사관생도로 유학을 갔다가 돌아왔고, 청군의 동태 보고와 정전 시위를 맡았으며, 정변 때 별군관을 지냈다. 대역부도죄인으로 군기시 앞에서 능지처사를 당했다.

62)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78, 『大逆不道罪人喜貞等鞫案』, 앞의 책, 588~589쪽.

63) 그는(당시 33세) 서광범의 겸종이었다. 苧廬에서 장사를 하기도 했다. 정변 때 별군관을 맡았다. 모반부도죄로 참형을 당했다.

64)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78, 『大逆不道罪人喜貞等鞫案』, 앞의 책, 642쪽.

65) 그는(당시 33세) 전영 병정에서 전영 교장이 되어 전영 병정을 지휘하여 경우궁을 시위하였다. 모반부도죄로 참형을 당했다.

좋은 관직을 얻을 것이다”라고 했다.<sup>66)</sup>

⑤ 신흥모(申興模)를 심문<sup>67)</sup>

후일 개화의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여 스스로 이미 營校에서 물러나기를 도모하였으니 이미 화심을 품은 것을 알 수 있다. (중략) 그 말(개화)을 즐겨 듣고 개화의 세상을 희망하였으니 너의 죽을죄가 아니겠느냐? (중략) 의논하여 (고종에게) 아뢰길 “죄인 신흥모는 (중략) 일이 끝난 후 개화의 세상이 되면 영달을 기약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다시 엄한 형벌을 가하여 범죄의 실정을 알아내게 하십시오.”<sup>68)</sup>

⑥ 이응호를 심문

복모의 지휘를 너는 이미 듣고 따랐으며, 開化榮利의 말 또한 기쁘게 들었으니 앞뒤가 흥쾌한데도 어찌 감히 알지 못한다고 하느냐?<sup>69)</sup>

①의 김봉균의 진술에서 나타났듯이 김옥균 등이 ‘실개화당’과 대립되는 세력으로 ‘완고당’이라고 한 것은 개화의 대립 개념으로서 수구와 완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앞서 『한성순보』의 1884년 6월 기사 내용 중 “守舊를 물리치고 開化를 받아들이면”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갑신정변 직전 개화의 대립 개념으로 ‘수구’가 등장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개화의 대립 개념으로 ‘만(蠻夷)’이 아닌 ‘수구’가 자리를 잡은 것은 1883년경부터였다고 보인다. 이때는 개화파 내부에서 변법과 시무의 분화가 일어났던 시

66)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78, 『謀反大逆不道罪人景純等鞫案』, 앞의 책, 719쪽.

67) 그는(당시 29세) 신흥모와 신복모의 형으로 전영 장교였으며, 모반부도죄로 참형을 당했다.

68)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78, 『謀反大逆不道罪人景純等鞫案』, 앞의 책, 734~736쪽.

69)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78, 『謀反大逆不道罪人景純等鞫案』, 앞의 책, 736쪽.

기였다.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박제경(朴齊綱)이 1883년 1월경에 쓴 『근대조선정감(近世朝鮮政鑑)』의 배전(裴)의 평에서는 이미 개화와 수구가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sup>70)</sup> “개화를 막고 완고를 보호하며”, “완고를 변하여 개화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기 어렵다”라는 언급 등은 개화의 대립 개념으로 완고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sup>71)</sup> 이것은 개화 개념이 정치세력의 갈등 과정에서 개혁과 진보를 표상하는 이미지로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③의 이윤상의 진술 내용에서 “함께 개화하려면 먼저 죽동 부자를 제거”해야 한다는 표현은 개화가 곧 권력구조의 변동을 시도하는 ‘혁명’의 구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②의 기록에서 갑신정변이 추구한 개혁이 개화로 등치되는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한다. “서양 여러 나라와 동렬”, “각국 사람들은 그 몸을 아끼지 않아 개화를 얻었는데”, “두 사람도 모두 이와 같으니 개화는 이를 수 있다”라는 언급은 서양의 근대 국가와 대등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개화로 표현된다. 또한 정변을 통해 그들이 개화를 이룰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개화의 개념에 내포되었던 ‘실행주체로서의 왕’의 의미를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화는 통치권자의 입장에서는 ‘화심(禍心)’ ‘사죄(死罪)’ ‘흉패

70) 배전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이 없다. 이광린(1969, 앞의 책, 253~255쪽)의 연구에 따르면, 그는 경상도 김해의 아전 출신으로 서울에서 생활하며 당대 시인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박은숙(2005, 앞의 책, 45쪽)의 연구에 따르면, 박제경이 자신의 글에 평을 부탁한 것으로 보아 박제경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그는 1882년 9월 예조좌랑이었던李大燾의 이름으로 상소를 올렸다가 이후 이름을 도용한 혐의로 체포되어 귀양살이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근세조선정감』의 저자가 朴齊綱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綱을 잘못 쓴 것이다. 박제경은 정변모의에 참여하여 벌금 방화를 담당하였고, 갑신정변이 진압되는 과정 중 수표교에서 분노한 한성부민에 의해 피살되었다.

71) 朴齊綱(1981), 『近世朝鮮政鑑 上』, 이익성 역, 탐구당, 151쪽.

(凶悻)로 표현되었다. ⑤와 ⑥의 기록에서 심문자는 “개화의 세상을 희망하였으니 너의 죽을죄가 아니겠느냐?”, “開化榮利의 말 또한 기쁘게 들었으니 앞뒤가 흥패한데도 어찌 감히 알지 못한다고 하느냐?”라고 하여 개화를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표상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행위는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개화의 세상이 되면 영달을 기약’ 한다는 표현이나 ‘개화영리(開化榮利)’라는 말은 개화를 개인의 이익과 연결시켜 정변의 부도덕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변 참여층에게 있어서 ④의 기록에서 보이는 “우리들은 개화의 세상사가 이루어진다면 마땅히 좋은 관직을 얻을 것이다”라는 진술에는 체제가 변화하지 않으면 양인의 신분으로 좋은 관직에 오를 수 없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들의 바람은 갑신정변 정령 제2조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권을 제정하고, 사람으로서 관을 택하고 관으로서 사람을 택하지 말 것’이라는 조항으로 수렴되었다. 갑신정변에서는 관직등용, 조세부과, 교육제도, 군역제도, 법의 적용에 있어서 신분제적 차별을 제거하는 의미로서 인민평등권 제정이 주장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갑신정변 참여세력의 규합을 위한 의제로서 작용하고 있었다.<sup>72)</sup>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앞서 『한성순보』의 부국 또는 강병을 위한 서양 기술의 도입을 포함하는 의미와 윤치호의 통치 권력 작동방식의 변화를 포함하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14개의 정령을 통해 제도개혁의 내용으로 구체성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한성순보』와 윤치호의 개화 개념 속에 내포한 ‘왕을 실행 주체’로 하는 관념과는 분명히 단절된 것이었다. 따라서 추국 과정에서 김옥균의 ‘개혁’이 개화로 등치되는

72) 박은숙, 2005, 앞의 책, 385~413쪽.

순간 개화 개념은 혁명과 역적의 이미지로 표상되었다.

갑신정변이 진압된 2개월 후 상하이 증서서원(中西書院)으로 유학을 갔던 윤치호는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었다.

4~5인이 개화의 總導者가 되어서 갑자기 激憤한 일을 저질러 나라는 위태롭게 만들고 청인들로부터 억압과 능멸을 받음이 전날보다 배는 더하게 되고, 이른바 개화에 관한 말을 땅에 발라 흔적도 없게 하리라는 것을 어찌 뜻하였는가. (중략) 전에는 개화당을 꾸짖는 자도 많이 있었으나 오히려 개화가 이롭다는 것을 말하면 듣는 사람들도 감히 크게 꺾으려 들지는 않았다. 그런데 변을 겪은 뒤부터 朝野에서 모두 말하기를 ‘소위 개화당이라고 하는 것은 충의를 모르고 외인과 연결하여 賣國背宗하였다’고 하고 있다. 어찌 개화에 주목한 사람 가운데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의사를 품은 사람이 있었겠는가.<sup>73)</sup>

개화당의 이미지가 임금과 나라를 외인에게 팔아버린 세력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개화 개념이 개화당의 이미지와 겹쳐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개화란 말을 꺼내기조차 힘든 상황이 초래되고 있었다는 것은 갑신정변 직후 개화 개념이 갑신정변 세력과 등치되는 개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반국가, 반체제 이미지로 표상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유길준의 편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1885년 12월 귀국길에 자신의 스승인 모스에게 쓴 편지에서 “조선 정부가 저를 작년에 일어난 혁명(revolution)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하고 (중략)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혁명당(revolutionists)은 임금과 나라에 충성을 다할 때에는 나의 좋은 벗이었지만, 그들이 역적(traitors)으로서 나라에 큰 해를

73)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3, 앞의 책, 甲申 12月 30日, 136~137쪽.

끼친 이상 이제는 나의 큰 원수(great enemy)라고 써 보냈습니다”라고 하여 갑신정변을 혁명으로 규정하고, 그들이 임금을 배신했기 때문에 역적이라고 하여 경원 내지 기피하는 입장을 표명했다.<sup>74)</sup>

반면 정변 세력이 일본인과 결탁하여 고종을 폐위시키고 나라를 팔아넘기려고 했다는 소문으로 인해 반일감정이 크게 고조되면서 한성부민이 일본인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고 정변 참여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성부민들은 개화당 세력을 침략자 일본인을 불러들인 공적으로 타도대상으로 보았다.<sup>75)</sup> 일본의 군사력에 의지한 김옥균 등의 개혁이 개화개념으로 등치되는 순간 반일정서를 가진 민중들에게 개화는 친일적 이미지로 표상될 가능성이 높았다. ‘매국배종(賣國背宗)’의 이미지가 개화개념에 덧씌워지는 한 정치기획으로 개화 개념을 동원하여 민을 국가주권을 향해 조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 맺음말

‘개물성무(開物成務)’와 ‘화민성속(化民成俗)’은 모두 왕 또는 성인이라는 통치자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의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계몽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상적인 왕의 통치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은 ‘개물성무(開物成務)’란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으며, 민정에 관계되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는 안민(安民) 또는 편민(便民)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화민성속(化民成俗)’의 차원에서 시행할 수

74) 유명익, 1990, 앞의 책, 98~99쪽.

75) 박은숙, 2005, 앞의 책, 491~497쪽.



있는 것이었다. ‘개물성무(開物成務)’와 ‘화민성속(化民成俗)’은 이념적으로 성인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왕의 정책이념이기도 했다.

따라서 ‘개물성무 화민성속(開物成務 化民成俗)’의 의미였던 개화는 서양을 야만이 아닌 문명으로 인정하는 인식상의 변화가 수반된다면 자연스럽게 서양 문명의 수용을 의미하는 개념이 될 수 있었다. 1876년 개항 이후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물성무 화민성속(開物成務 化民成俗)’이란 수사를 통해 왕에게 건의되고 있었다는 점은 이 말이 유교 문명뿐만 아니라 서양 문명의 수용을 포함하는 의미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1881년 이전 서양 문명이 본받을 만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으며, 젊은 관료들과 지식인들이 일본을 왕래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확산되고 있었다. 부패한 권력의 작동방식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고종의 통치권을 흔들여 놓았던 임오군란이 진압되자 고종은 통치권의 재건을 위해 서양 기술의 도입을 통한 무비자강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민의 반서양 정서에 대한 교정을 시도하기 위해 『한성순보』를 발간했다.

『한성순보』는 서양 문명이 야만이 아니라 본받을 만한 문명이며, 동시에 다양한 문명의 장점을 취하여 부국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선전하여 고종의 동도서기적 입장의 무비자강정책을 지지했다. 부국과 강병이란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여 서양 자본주의 국가의 기술과 경제제도의 도입을 통한 국가의 진보를 이야기했다.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도입하여 인지를 발달시키는 진취적인 기상이라는 의미, 풍속의 진보를 뜻하는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상의 변화가 내포되어 있었으며,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통

해 국가의 진보와 독립을 달성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개화 개념이 정치운동 과정에 등장했던 것은 개화당의 성립이었다. 개화당이었지만, 갑신정변에 참여하지 않았던 윤치호의 개화 개념은 대민통치방식을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시스템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의 개화 개념은 봉건적 수탈의 제거, 신분제적으로 운영되던 관리 등용, 교육, 과세, 군역 등의 폐지, 국가재정의 단일화를 통해 재정기반 확충, 자유상업과 자본주의 금융, 유통시스템의 도입이라는 개화당의 개혁 내용과 상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윤치호는 당시의 정치현실에서 개화의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다. 실행 주체로서의 왕의 존재를 탈각하지 못한 윤치호의 개화는 통치자의 선택과 정치적 변수에 의해 그 실행의 기회를 엿보아야 하는, 권력구조의 틀 속에서 개념지어진 것이었다.

개화 개념에 내포된 실행 주체로서의 왕의 존재가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이었다. 주체적으로 권력구조의 변동을 통한 김옥균의 개혁은 갑신정변 직후 진행된 추국 과정에서 개화 개념으로 등치되었다. 『한성순보』의 풍속 진보와 윤치호의 통치방식 변화라는 의미는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에 그대로 내포되어 있었다. 다른 점은 실행 주체로서의 왕의 존재가 그 의미를 상실한 것이었다.

따라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화심(禍心)’ ‘사죄(死罪)’ ‘흉패(凶悖)’로서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표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또한 일본의 군사력에 의지한 김옥균 등의 개혁이 개화 개념으로 등치되는 순간 반일 정서를 가진 민중에게 개화개념은 ‘매국배종(賣國背宗)’의 이미지로 표상되었다.

갑신정변 이후 개화 개념이 국가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기대 지평이 되기 위해서는 역적과 매국의 이미지를 벗어나야 했다. 이후 유길준이

『서유견문』에서 ‘개화의 등급’을 서술하면서 고려한 점 역시 개화 개념에 내포된 역적과 매국의 이미지를 떼어 내는 일이었다. 이 점은 다음의 연구에서 고찰하기로 하겠다.

## 참고문헌

### 1. 1차 문헌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漢城旬報』  
『皇城新聞』  
『魚允中全集』  
『尹致昊日記』  
『金玉均全集』  
『推案及鞫案』

### 2. 2차 문헌

#### 1) 단행본

강재연, 1982, 『한국근대사연구』, 한울.  
김영작, 1975, 『韓末ナシヨナリズム研究』, 東京大學出版會.  
박은숙, 2005, 『갑신정변연구』, 역사비평사.  
신용하, 2000, 『초기 개화사상과 갑신정변연구』, 지식산업사.  
유영익, 1990, 『갑오경장연구』, 한국근현대사회연구회 편, 일조각.  
이광린, 1969, 『한국개화사연구』, 일조각.  
\_\_\_\_\_, 1977, 『개화당연구』, 일조각.  
\_\_\_\_\_, 1989, 『개화파와 개화사상연구』, 일조각.  
\_\_\_\_\_, 1998, 『한국 근대 개화사상과 개화운동』, 신서원.  
朴齊炯(1981), 『近世朝鮮政鑑 上』, 이익성 역, 탐구당.  
이노우에 가쿠고로(1993), 『서울에 남겨둔 꿈』, 한상일 옮김, 건국대학교출판부.

## 2) 논문

- 구선희, 1996, 「개화기 조선의 대청정책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오영, 1992, 「임오군란 일지」 『근현대강좌』 1.
- 길진숙, 2004, 「『독립신문』·『매일신문』에 수용된 ‘문명/야만’ 담론의 의미 층위」, 『국어국문학』 제136권.
- \_\_\_\_\_, 2006, 「문명의 재구성 그리고 동양 전통 담론의 재해석—『황성신문』을 중심으로」, 『근대 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지평의 확대』, 소명출판.
- \_\_\_\_\_, 2007, 「1905~1910년, 국가적 대의와 문명화—『대한매일신보』의 문명 담론을 중심으로」, 『근대 계몽기 지식의 굴절과 현실적 심화』, 소명출판.
- 김복수, 2000, 「유길준의 개화운동과 근대 신문 창간에 미친 영향」, 『한국언론학보』 44-4.
- 김현주, 2001, 「서유견문의 (문명)개화 론과 번역의 정치학」, 『국제어문』 24.
- 류재택, 2000, 「임오군란의 원인에 대한 재고찰」 『실학사상연구』 14.
- 이광린, 1968,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38.
- 정용화, 1998, 「유길준의 정치사상 연구: 전통에서 근대로의 복합적 이행」,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차태근, 2005, 「19세기말 중국의 西學과 이데올로기」, 『중국현대문학』 제33호.
- 최 준, 1969, 「『한성순보』의 뉴스源에 대하여」, 『신문학보』 2.
- 月脚達彦, 1991, 「開化思想の形成を展開-俞吉濬の對外觀を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8.

## Abstract

# Intention and Presentation of the Concept of 'Gaehwa(開化)' around the Kapshin Coup of 1884

Yunhee Kim (Hallym Academy of Sciences, Hallym University)

■ Key Word : Gaehwa(開化), Gaemulseungmu Hwaminseungsok(開物成務 化民成俗), Hanseongsunbo, Independent sovereignty of the nation, Yun Chi-ho, Kapshin Coup, System of government

Existing studies dealing with the adoption of western thought do not consider that the term Gaehwa was used before the introduction of Gaehwa as a modern concept, reflecting the Confucian notion, so that, in the process of accepting the translation of civilization, the term Gaehwa was regarded as the modern concept, meaning western civilization. Owing to this notion, prior study of the Gaehwa concept largely overlooks the intention and presentation of the Gaehwa concept.

Given that the various ways of maintaining the governing system after the opening of the port in 1876 were proposed to the King via the words 'Gaemulseungmu Hwaminseungsok(開物成務 化民成俗),' the words indicate the possibility of their including the admission of western civilization as well as the Confucian one.

The quest to develop the culture by introducing western skills and systems, and the concept of Gaehwa, meaning the improvement of customs within Hanseongsunbo, the conscious efforts by the people to understand the

independent sovereignty of the nation illustrated that the improvement and independence of the nation was contained through the strength of civilization and accepted by the ruler. The concept of Gaehwa manifested itself in the political arena through the foundation of the Gaehwa Party. To Yun Chi-ho, who was a member of the Gaehwa Party but did not participate in the Kapshin Coup, the concept of Gaehwa meant to change the ruling system, to conform with those of modern western nations. But, his concept of Gaehwa functioned within the traditional boundary of the ruling system, conducted through the ruler's selection and political variables, without excluding the existence of the king, the practical subject. The existence of the king, a practical subject contained within the concept of Gaehwa, however, disappeared with the Kapshin Coup. The reformation of Kim Ok-kyun, who pursued the reform of the power structure, was also defined by the concept of Gaehwa, in the process carried out soon after the Coup. The improvement of customs within Hanseongsunbo, and Yun Chi-ho's reform of the system of government were contained equally by the concept of Gaehwa within the Coup. The difference was that the existence of king as a practical subject lost its meaning. Accordingly, in the ruler's place, the concept of Gaehwa within the Coup was presented as a big challenge against the ruler, and as something not for the nation but for individual ambition. In addition, the reforms of Kim Ok-kyun and so on, dependent on Japan's military power, were described equally by the concept of Gaehwa, and were presented as the image of 'Maegukbaejong(賣國背宗)' to people who had anti-Japanese sentiments.